# 북구 해외시장개척단, 1,540만 달러 성과 창출




북구 해외시장개척단 베트남 현지 방문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 베트남 현지 기관과 수출·인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지역 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미래 산업 교류 협력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베트남에서 총 1,540만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와 함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크게 확장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척단은 북구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손잡고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돕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5박 6일간 열띤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5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북구는 미용·뷰티, 식료품, 의료기기 등 생활 소비재 분야 10개 기업과 함께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다수의 수출 상담회와 현지 바이어 미팅 등에 참여하며 신규 판로 확보에 힘썼다. 특히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는 협력 체계 기반도 다졌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 표준·계량·품질 전문 기관인 제3품질표준측정시험센터와 품질기준, 시험, 검사 등 기업이 현지 진출 시 준수해야 하는 인증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4일에는 베트남 창업진흥교류원과 지역 창업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적합성 검증, 유통망 파트너 발굴·연계 등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야 기반도 강화했다. 6일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연구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테크노브리지 회사 등 관계 기관과 업무 협력서에 서명했다. 향후 참여 기관들은 반도체·광융합·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첨단소재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북구는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과 성과를 넘어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하노이 탕롱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취업·창업 및 인적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북구는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뿐 아니라 현지 기관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 광산구, 평택 환경행정 견학…반도체 도시 대응 모색

## 반도체 도시 환경 대응 사례 현장 확인

## 정보 공유·협력 강화로 선제적 대응 준비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선진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발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친환경 기반 설계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환경녹지국 소속 공직자 20명이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일원을 찾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해 환경 기반 시설, 친환경 녹지공간 등을 현장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서 광산구 공직자들은 반도체 생산 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행정 대응, 단계별 환경 기초 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확보 및 운영, 배후 정주 여건을 위한 녹지·도시 공원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택시 최대 규모의 생태형 복합문화공간인 함박산 중앙공원에서는 반도체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의 해법을 엿볼 수 있었다.

광산구 대표 공원인 쌍암근린공원의 약 4.5배 규모에 달하는 함박산 중앙공원(면적 67만㎡)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및 배후 주거 단지 개발에 맞춰 조성된 곳으로, 지난 2023년 개장했다. 다양한 둘레길과 정원, '스포츠필드', 음악분수 등 자연생태와 문화·체험·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원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도 노동자, 주민의 여가·문화 생활을 뒷받침할 미래형 복합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광산구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원 이용 환경 개선, 노동자, 주민의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공원 기능 강화 등도 참고할 시사점으로 꼽았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체계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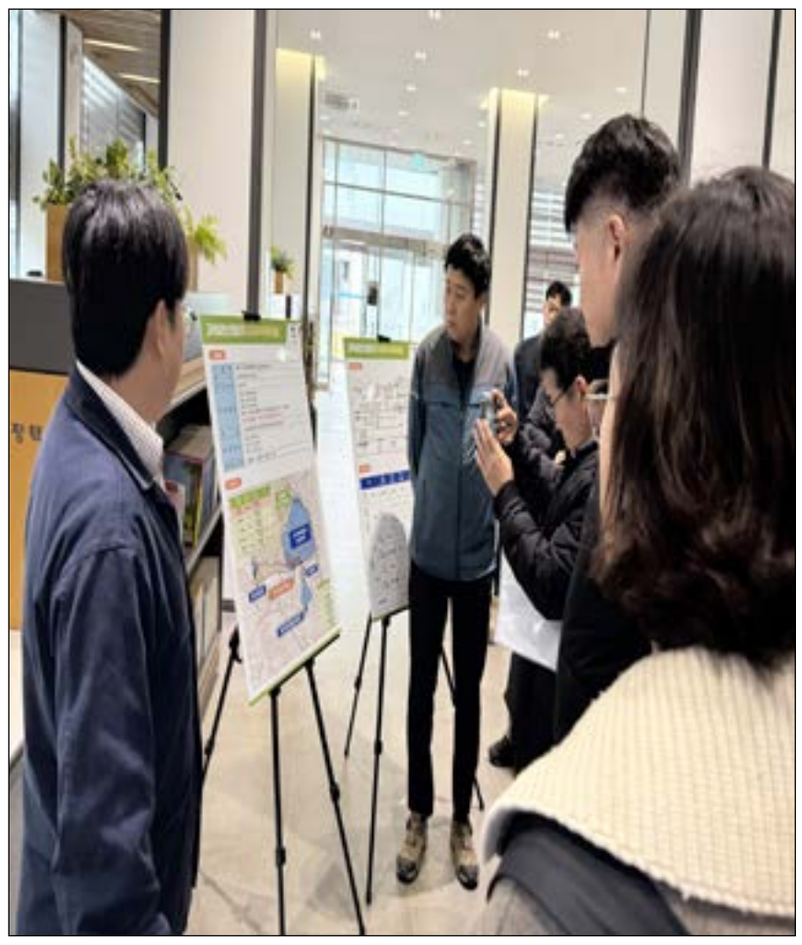
특히, 평택시 사례에선 반도체 생산 시설(팹·FAB)의 단계별 증설에 맞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환경영향 선제적 점검 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광산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과제로 산업단지 계획 초기부터 환경 기초 시설 확보와 연계 관리·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환경행정 대응체계를 위한 정보 공유·협력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살기 좋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 지역과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평택 현장 사례를 분석·정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라며 "국가산업과 지역의 건강, 안전, 친환경의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광산구가 앞장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반도체 도시 현장 탐방과 시민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의견 반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박병규 청장이 단장을 맡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단'을 중심으로 '백만 광산 오백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평택 반도체 현장 환경행정 답사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